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위해 서울시 주도 제도적 지원·정책거버넌스 마련해야

글로벌 경제환경 내 ESG 규제 강화,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등 움직임 본격화

최근 전 세계적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가 국가와 지역 경제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 UN 내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국제협약’(Global Impact)이 출범하고, 2006년에 ‘UN 책임투자원칙’(UN PRI)이 설치된 이후 ESG 투자(금융) 프레임이 확립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세계 각국 정부도 외부불경제 요소들을 기업에 내재화하려는 ESG 관련 규제(탄소 배출 저감,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산업안전보건, 반부패, 이사회 및 감사 등)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MZ 세대의 부상 또한 경제환경 내 주요 변화요인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사회는 ESG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ESG 금융의 적용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중소기업에도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ESG 경영 도입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필요성은 날로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서울시 중소기업, ESG 인식에 제한적...“경영에 영향 주지 않을 것” 판단 우세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서 우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과 관련한 제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ESG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적극적 인식과 소극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원론적·규범적 차원의 인식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 따른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적극적 경

영 전략 수립 및 실행이 뒤따라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시 중소기업들의 E·S·G 영역별 중요도 인식은 E(환경)에 비해 G(지배구조)와 S(사회)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ESG 경영 도입의 실행에는 환경(E) 영역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중요도에서는 일반적(개념적) 인식과 경영 전략 간의 불일치가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서울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해 제한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ESG 경영의 수준도 저조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도 ESG 경영의 도입 여부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ESG 경영을 향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ESG 조직이나 담당 인력의 설치 여부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경영 도입의 동기(계기)는 이 연구에서 논의한 2가지 접근 중 ‘경영전략으로서 ESG 경영’보다는 ‘경영환경으로서 ESG 경영’에 가까웠다.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동인도 아직은 고객이나 소비자의 요구, 신용평가 내 ESG 반영 등의 요소들이 주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경영환경으로서 ESG와 경영전략으로서 ESG

서울시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수준은 낮지만 다양한 지원정책 수요 존재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제반 실태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ESG 경영 도입에 앞서 몇 가지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데, 자체 진단 및 평가체계 마련, ESG 경영계획 수립, ESG 경영정보나 매뉴얼 확보, 임직원의 인식 개선, 외부 컨설팅 실시

등 주로 절차적 요소들이었다. 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애로 요인은 재무적(비용) 부담과 직원들의 인식과 참여 부족, 전문인력 및 조직의 미비,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협조·지원 부족 등 주로 현실적인 요소들이었다.

중장기적으로는 ESG 경영의 확산 추세가 외부 환경적 변화로 인해 유지·확대된다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요도 존재하고 있다. 지원정책으로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정책금융 확대, 사업비 보조, 투자기금 조성, 정보서비스 지원 등 재정 및 정보 관련 지원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제도개선 상황으로는 인증제 도입 및 개선, 공시제도의 개선, 금융 및 투자 관련 제도, 지원 법률 및 조례 제정, 신용 및 평가제도 개선을 우선적 요소로 인식하였다. ESG 경영의 기업 내 정책을 위해서는 자금(예산) 확보와 CEO 및 임직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의지, 중소기업 특화형의 ESG 경영방식의 도입 및 운용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ESG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ESG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기 쉬운데, 글로벌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와 전망, E·S·G 각 영역 내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인식 확산이 요구된다. 특히 ESG 경영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영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공공영역은 관련 업계와 함께 ESG 경영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ESG 경영 포럼 운영 및 네트워킹 사업', 중소기업 ESG 경영 '서울형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배포, ESG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SG 경영 포럼 운영 및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ESG 경영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ESG 관련 의제나 쟁점을 폭넓게 논의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ESG 경영 포럼을 설치하

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기업들이 알기 쉽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면,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실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주도하여 ESG에 관한 세계적인 동향, 기업에 주는 영향, 다양한 실천 사례 등을 포함한 ESG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SG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실천에 필요한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또한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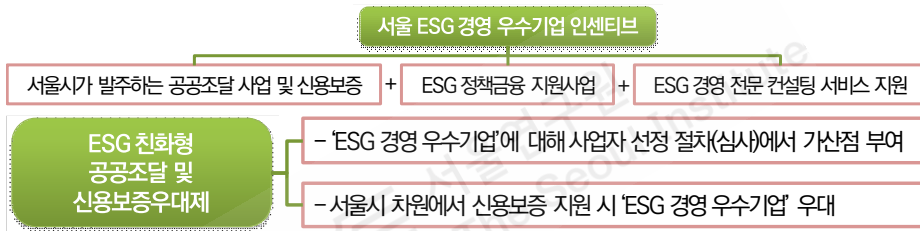


[그림 2] ESG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도적 지원환경 조성은 중소기업에도 친화적인 ESG 경영 생태계 조성에 도움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조적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일관성을 갖고 ESG 경영의 도입과 실천을 추진할 수 있도록 E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ESG 경영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도 친화적인 ESG 제도적 지원환경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ESG 경영 유도·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정보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 서울형 ESG 경영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적극 강구해 볼 수 있다. 'ESG 경영 유도·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은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용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ESG 관련 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기금(펀드)을 조성하여 운영 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ESG 상생기금의 도입과 운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보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 지원’은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ESG 경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가칭 ‘e로운-ESG경영’)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형 ESG 경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자체 ESG 모니터링 및 진단 모델 개발·보급, 서울형 중소기업 ESG 인증제 도입·운영, ESG 친화적 공공조달제 및 신용보증제 정비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가 개발·보급하고 있는 ‘K-ESG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 외에도 공공 조달 및 신용보증 우대제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 서울형 ESG 경영 제도적 기반

서울시 주도 ESG 정책거버넌스 구축해 업계 전반의 ESG 생태계 활성화 마련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하는 서울시의 정책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21세기에 ESG 의제가 부상하게 된 계기의 하나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원화된 주체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ESG 경영이 업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특성과 산업 환경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가 주도하고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참여·협력하는 ESG 경영 정책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ESG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제

정 및 정책위원회 설치,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 [S-ESG 얼라이언스](가칭) 설치·운영 등이 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적 환경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경제 실현 및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가칭)(이하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ESG 경영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선도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시 ESG활성화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 기관, 중소기업, 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S-ESG 얼라이언스](가칭)의 설치·운영도 필요하다. [S-ESG 얼라이언스](가칭)는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각 주체들과 협의하여 적정 민간기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되, 이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 (가칭)S-ESG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